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는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집단의 이익과 안위를 생각하기에 어느 개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과 이익이 상충될 때 우리 사회 안에서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과 다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할 수 있고, 더 큰 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 …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 39-42)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기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는 않았는가요? ‘참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이기려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그러나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안이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언제나 하느님의 영과 함께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영과 언제나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극명하게 충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온전한 자기희생과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요구하시는데, 현실의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세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몸소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성동 본당 보좌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복음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을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은총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증거자가 되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레위기 19장 1절-2절, 17절-18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묵 상 :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본성이신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2독서 : 코린토 1서 3장 16절-2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라 전합니다.

묵 상 :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성체를 담아두는 성합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과 우리가 모시는 성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5장 38절-48절

강 론 :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500번 ‘평화의 하느님’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거룩한 성합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모시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침묵>

거룩함과 완전함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완전함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침묵>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침묵>

성합과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랑이 요구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9번 ‘용기장이’

※ 공소사목 성금

모동공소

100,000원

사근공소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5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지구 구역·반장연수

- 문경지구 : 2월 19일(주일)
 - 점촌동 성당
- 상주지구 : 2월 26일(주일)
 - 계림동 성당(2월 21일까지 신청)
- 북부지구 : 3월 5일(주일)
 - 휴천동 성당(2월 28일까지 신청)
- 동해지구 : 3월 12일(주일)
 - 영해 성당(3월 7일까지 신청)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공소(농민사목)수녀, 선교사 모임

- 일시 : 2월 21일(화) 09:00 ~ 19:00
- 장소 : 교구청 09:00 집결
- 준비물 : 미사준비, 간편한 복장

■ 교구 성령목상회

- 일시 : 2월 24일(금) 14:00 - 26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0만원
- 신청 : 2월 19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010-8447-0111)

■ 청년 음악 피정

- 일시 : 2월 26일(주일) 10:00 - 21:0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강사 : 생활성가 솔로 가수들로 이뤄진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팀"
J-Fam(제이팸:Jesus Family)
- 대상 : 청년이면 누구나 환영!
- 참가비 : 1인 10,000원
- 문의 : 사목국(858-3114~5)
김효은 로사리아(010-2121-9250)

■ 레지오 마리에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3월 4일(주일) 10:00 - 14: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단장
(단장 불참시 반드시 대리 참석)
- 참가비 : 1인당 10,000원
- 강사 : 안상덕(다니엘) 마산 Re.전단장
- 준비물 : 목주, 활동수첩,
월례회의 해당자 월례회의 준비

※ 금번 교육은 실무 위주 교육이므로
특히 신입 단장 또는 4간부님 참석 요망

■ 3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주일) 12:00 (송현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3월 19일(주일) 12:00 (점촌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I

- 일시 : 3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1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3월 18일(토)-19일(주일)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아씨시수녀들과 함께 수도생활체험 피정

- 일시 : 2월 25일(토) - 26일(주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2만원)
- 문의 : 010-5313-0241 전베로니카 수녀

■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 일시 : 3월 18일(토) 11:00 - 19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부모자식·고부간,
내적·외적·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 회비 : 5만원(어린이 동반금지)
- 문의 : 010-5490-534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은 뽑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98.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른바 더 성숙한 이가 참을 수 없이 오만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태도는 사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마다가 다른 이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마태 20,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논리는 자신이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른 이가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태 20,27 참조). 가정생활에서 지배의 논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이를 가리는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충고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1베드 5,5).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99.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세모네이’(aschemonéi)라는 단어가 관련됩니다.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

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며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손은 “감수성과 사심 없는 마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사람들은 “사고와 정서를 함양하여 듣고 말하며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몸가짐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랑의 필수 조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주변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합니다.” 날마다 “다른 이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뢰와 존중을 더욱 다지는 감수성과 예의바른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 실제로, 사랑이 내밀하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0. 다른 이와 의 참된 만남에 열려 있으려면 다른 이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이의 단점과 실수를 서슴없이 지적하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정 어린 눈길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고, 서로가 다르더라도 인내하며 협력하도록 도와줍니다. 친절은 사랑을 유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며 통합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이를 위한 봉사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든 이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더불어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다른 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이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도 단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어 결국 사랑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말을 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위로와 위안이 되며 힘과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마태 9,2)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일어나라!”(마르 5,41)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이는 비하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멸시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영혼을 채워가는 삶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6살짜리 손자가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가 시작되자 꼼짝도 않고 몰입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나도 슬쩍 결눈질 해보았다. 유아들을 상대로 한 만화여서 그런지 내용도 단순해서 한눈에 스토리가 잡혀진다.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30년 후의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용감한 소년들이 미니카를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미니카를 로봇으로 변신시켜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만화영화에 나오는 미니카와 똑같은 자동차들이 손자의 방에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씩이나 굴러다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요즘 대한민국 젊은 엄마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는 터닝메카드라는 미니카가 있는데 바로 그 미니카가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다. 나는 딸에게 이게 다 뭐냐고 아이가 사 달란다 고 다 사주냐고 힐책하였다.

“엄마, 요즘 아이들 그 자동차 시리즈대로 사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아이가 왕따 당하느니 차라리 자동차를 사주는 게 나아요.”

딸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내 느낌에는 자식사랑에 올인하는 부모마음을 장난감 만드는 업자들이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터닝메카드를 주제로 한 만화영화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상술이 나는 영 못마땅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아기 주먹 만 한 그 자동차가 개당 몇 만원을 호가한다는 사실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도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자동차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으며 수많은 엄마들이 그 장난감이 절판되기 전에 내 아이에게 만큼은 사줘야 한다며 꼭두새벽부터 달려가서 가게 앞에 줄을 선다고 하니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현상이다.

6살이면 세상의 때라고는 전혀 물들지 않은 백지상태의 순수한 영혼이 아닌가, 그런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의 만족과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장난감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해 주어야 한다.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은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닳아 없어지지 않는 삶의 자양분이다.

어린 시절 외갓집 마당의 멍석에 누워 바라본 밤하늘의 경이로움은 아직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비 온 뒤의 황톳길을 자박자박 걷다가 돌아보면 내 발자국에 구름을 안은 물이 고여 있어 얼마나 신기 해 했던가. 장난감이라는 개념은 전무한 시대였으니 개울가에서 잡아온 작은 물고기들을 깡통 안에서 키워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아득히 먼 세월이었으나 지금도 되돌아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고달픈 삶을 기꺼이 위로해 주는 추억들이다. 인공적인 조명으로 인해 더 이상 별자리를 찾아 볼 수 없고 사방이 시멘트인 공간에서 태어나 자동차와 아스팔트만 뚫아보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값비싼 장난감이 줄 수 없는, 아이의 영혼을 가치롭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한없이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봄비가 온 뒤에 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절마다 왜 다르게 바람이 부는지, 등지를 짓기 위해서 새가 얼마나 많은 날개 짓을 해야 하는지, 길가에 돌아난 작은 새싹, 굴러가는 자갈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어디 그 뿐인가 새벽이슬에도 우주를 담아 보내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가르쳐준다면 아이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상은 더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다.